레미콘 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1. 1997년 건설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97년 국민계정(잠정치)'에 의하면 '97년중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은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내수가 부진하여 전년의 7.1%에서 5.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명목GDP)은 전년보다 8.0% 증가한 421조원에 달하였으나 달러 기준으로는 환율상승 연평균 18.2%에 달해 전년대비 8.6% 감소한 4,426억달러에 그쳤으며 1인당 GNP도 9,511달러로 전년 10,543달러 보다 1,032달러 줄어들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은 〔표 1〕에서와 같이 전년 6.6%신장률에 비하여 크게 둔화된 2.8%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건설업 신장률이 둔화되면서 97년 국내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4.6%로 96년 수준(14.5%) 에 머물렀다.

97년도에 건설업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민간부문의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건설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반적인 둔화 속에서도 전력, 고속도로, 항만 ·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건설이 비교적 활발하여 년간 12.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정부건설은 공공관서 등 건물건설은 꾸준히 늘었으나 도로 및 지하철 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상하수도 건설도 부진하여 전년 16.3% 보다 낮은 8.5% 증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2.5%로 꾸준히 늘었으나 제조업 6.2%, 서비스업 6.5%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수요면에서는 수출이 23.6%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으나 설비투자는(-11.3%)의 큰 폭으로 줄어들고 민간소

〔표 1〕 건설업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구분 \ 기간	95년	96년	97년				
			년간	1/4	2/4	3/4	4/4
건 설 업	8.6	6.6	2.8	-0.9	2.5	4.8	3.6
민 간 건 설	10.7	3.5	0.2	-1.7	-1.0	1.9	0.3
주 거 용	9.3	0.3	-4.9	-7.8	-4.5	-6.2	-0.9
비주거용	14.1	-3.0	-4.0	-3.2	-5.2	-0.3	-7.6
토목건설	12.4	18.2	12.0	16.2	11.2	17.4	6.9
정 부 건 설	1.1	16.3	8.5	1.3	9.5	7.5	11.1

자료 : 한국은행 '97년 국민계정(잠정치)'

비(3.1%)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7년도 건축허가 동향'에 따르면 97년도 총 건축허가면적은 113,374천㎡로 지난해 113,821천㎡에 비하여 0.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62,677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064천㎡에 비하여 2.6%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며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26,862천㎡에 비해 3.9% 증가한 27,920천㎡가 허가되었다.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반적인 경기 하강으로 공장의 신·증설 및 설비투자가 부진하여 전년대비 26.2%감소한 8,797천㎡가 허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2. 97년 레미콘 산업동향

97년도 레미콘산업은 전국 558개업체 715개공장에서 133,196,735㎥를 생산하여 전년 125,805,765㎥대비 5.9%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9.7%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연초 한보그룹을 시작으로한 일부 대기업 및 대형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증가등으로 인한 극심한 금융 불안과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며, IMF체제로 편입되기 시작한 년말부터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여파로 인한 일부 레미콘업체들이 자금난으로 부도가 이어지면서 레미콘 산업의 증가세도 전년에 비하여 크게 둔화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년간 생산능력은 317,064천㎥으로 전국 평균 가동율은 42.0%를 나타내 전년 43.6%보다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인지역은 109개업체 158개공장에서 97,600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52.1%의 가동율을 나타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가동율을 나타내었지만 부산·경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가동율이 전국 평균 가동율을 밑도는 저조한 가동율 기록하였다.

레미콘 생산실적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레미콘산업은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이 활

〔표 2〕 97년도 건축허가면적

(단 위 : 천㎡, %)

구 분	95년	95년	97년도				
			년 간	1/4	2/4	3/4	4/4
전 체	117,327 (1.0)	113,820 (-3.0)	113,374 (-0.4)	22,853 (-3.4)	31,978 (3.6)	24,754 (-15.1)	33,789 (21.1)
주거용	62,614 (-1.2)	61,062 (-2.5)	62,677 (2.6)	11,674 (-7.3)	17,587 (2.5)	12,990 (-8.4)	20,426 (19.2)
상업용	28,549 (3.8)	26,862 (-5.9)	27,918 (3.9)	6,100 (2.8)	7,704 (4.4)	6,549 (-10.3)	7,568 (21.1)
공업용	13,727 (3.3)	11,921 (-13.2)	8,796 (-26.2)	2,334 (-13.1)	2,489 (-20.8)	2,148 (-37.7)	1,825 (-31.0)
기 타	12,438 (3.3)	13,971 (12.3)	13,982 (0.0)	2,746 (12.6)	4,197 (31.9)	3,070 (-27.5)	3,969 (-3.5)

자료 : 건설교통부, ( )는 전년동기 증감률임.

〔표 3〕 전국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1997년 12월31일 기준)

구분 / 지역	업체수	공장수	배 쳐 플 랜 트			레미콘 믹서트럭 보유대수	시멘트 사이로 (Ton)	가동율 (%)
			기 수	생산능력(B/P)				
				m^3/hr	천m^3/년			
서울·경인	109	158	264	48,800	97,600	7,667	169,850	52.1
강 원	68	76	81	10,950	21,900	1,202	37,050	32.5
충 북	43	45	54	7,550	15,100	944	24,150	38.8
대전·충남	71	89	119	18,594	37,188	2,056	77,650	36.9
전 북	46	50	65	10,310	20,620	1,134	39,290	31.8
광주·전남	63	77	92	14,880	29,760	1,890	51,620	38.6
대구·경북	89	100	131	20,614	41,228	2,354	95,560	38.0
부산·경남	94	105	152	23,864	47,728	3,185	106,175	42.1
제 주	15	15	19	2,970	5,940	299	9,980	30.5
합 계	558	715	977	158,532	317,064	20,731	611,325	42.0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 임.

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총 61,829,577m^3를 생산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56,509,904m^3보다 9.41%의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97년 상반기중 건설경기의 둔화 추세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음에도 레미콘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내었던 것은 일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공동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전년에 이어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급 레미콘 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콘크리트 구조물이 점차 고층화, 대형화 추세로 전환하면서 고강도, 고품질의 레미콘을 요구함에 따라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레미콘의 투입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반기 레미콘산업의 특징은 경기침체와 대형건설사의 부도로 인하여 민간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반전하였고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관수레미콘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면서 관수레미콘이 전체 레미콘산업을 주도한 점이며, 각 지역별로 건설경기의 편차가 심화되어 지역별 레미콘 생산증가율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4〕 분기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3, %)

구 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3/4분기	4/4분기	하반기	년간
'96년	20,152,407	36,357,497	56,509,904	33,637,310	35,658,551	69,295,861	125,805,765
'97년	22,946,609	38,882,968	61,829,577	33,596,864	37,770,294	71,367,158	133,196,735
증강율(%)	13.9	6.9	9.4	-0.1	5.9	2.9	5.9

〔표 5〕 연도별 민 · 관수 점유비 변동현황

(단위 :㎥ %)

수요별 / 년도	민 수	관 수	총 계
1992년	67,198,634 (77.0)	20,018,333 (23.0)	87,216,967 (100)
1993년	71,528,120 (78.5)	19,543,054 (21.5)	91,071,174 (100)
1994년	85,829,051 (80.5)	20,762,884 (19.5)	106,591,935 (100)
1995년	94,991,463 (82.8)	19,739,634 (17.2)	114,731,097 (100)
1996년	105,181,550 (83.6)	20,624,215 (16.4)	125,805,765 (100)
1997년	109,244,888 (82.0)	23,951,888 (18.0)	133,196,735 (100)

주) ( )는 전체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요별 점유비 임

한편 하반기에는 금융위기의 심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대형건설업체 및 대기업들의 부도사태와 이로 인한 일시적인 공사중단 및 장기적인 미분양주택의 적체등 민간건설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레미콘은 71,367,158㎥를 출하하여 전년 같은 기간 69,295,861㎥대비 2.99%증가에 머물러 상반기에 비하여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관수용 레미콘은 도로, 교량, 항만등 SOC시설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시설, 강원 및 경기일부지역의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수에 대한 민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은 민간건설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 · 관수 수요별 레미콘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민수는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민간건설경기의 침체를 반영 전년 105,181,550㎥대비 3.86%증가에 불과한 109,244,888㎥를 생산한 반면 대규모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레미콘을 턴키베이스 전환하면서 감소추세에 있던 관수는 공공공사의 호조로 23,951,847㎥를 출하하여 전년 20,624,215㎥대비 16.13%의 높은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특히 대구 · 경북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관수레미콘출하의 증가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93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관수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최근 몇 년간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레미콘 생산이 정체 혹은 감소하였던 제주지역은 관광위락시설 및 상업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레미콘 출하가 급증하면서 전년 1,549,106㎥대비 16.81%증가한 1,809,459㎥를 출하하였으며 강원지역은 농로확장보수와 관계수로의 정비 그리고 강원북부지역의 수해복구 및 방지시설의 개 · 보수와 도로확장 등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레미콘 출하가 급증하여 관수출하가 전년 1,426,621㎥대비 29.71%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민수는 춘천을 중심으로 한 중 · 소도시에서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주택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8.84%증가한 5,273,445㎥를 출하하였다. 또한 대전 · 충남지역은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단지 및 천안의 임대아파트, 관공서 신축 및 도로공사현장에 레미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12,362,569㎥대비 11.04%증가한 13,727,504㎥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 경북지역은 지역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 및 중견 건설업체인 보성건설과 대표적인 주택건설업체인 청구등 이 지역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 레미콘 출하량에 영향을 끼쳐 전년 15,790,846㎥대비 0.80% 감소한 15,663,947㎥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서울 · 경인지역 7.24%(50,864,394㎥), 부산 · 경남(20,099,602㎥), 광주 · 전남

〔표 6〕 97년도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3, %)

지 역	수 요 별	1997년	1996	증감율	점유율
서울 · 경인	민 수	44,370,753	41,797,497	6.16	38.2
	관 수	6,493,641	5,632,631	15.29	
	계	50,864,394	47,430,128	7.24	
강 원	민 수	5,273,445	4,845,201	8.84	5.3
	관 수	1,850,497	1,426,621	29.71	
	계	7,123,942	6,271,822	13.59	
충 북	민 수	4,862,591	4,657,769	4.40	4.4
	관 수	994,776	969,022	2.66	
	계	5,857,367	5,626,791	4.10	
대전 · 충남	민 수	11,107,144	10,283,701	8.01	10.3
	관 수	2,620,360	2,078,868	26.05	
	계	13,727,504	12,362,569	11.04	
전 북	민 수	4,849,404	4,607,508	5.25	4.9
	관 수	1,714,818	1,502,905	14.10	
	계	6,564,222	6,110,413	7.43	
광주 · 전남	민 수	8,830,745	8,842,205	-0.13	8.6
	관 수	2,655,553	2,031,872	30.69	
	계	11,486,298	10,874,077	5.63	
대구 · 경북	민 수	12,506,685	12,673,617	-1.32	11.8
	관 수	3,157,262	3,117,229	1.28	
	계	15,663,947	15,790,846	-0.80	
부산 · 경남	민 수	16,248,479	16,380,150	-0.80	15.1
	관 수	3,851,123	3,409,863	12.94	
	계	20,099,602	19,790,013	1.56	
제 주	민 수	1,192,642	1,093,902	9.30	1.4
	관 수	613,817	455,205	34.84	
	계	1,809,459	1,549,106	16.81	
합 계	민 수	109,244,888	105,181,550	3.86	100
	관 수	23,951,847	20,624,215	16.13	
	계	133,196,735	125,805,765	5.87	

지역 5.63%(11,486,298㎥), 전북지역 7.43%(6,564,222㎥), 충북지역 4.10%(5,857,367㎥) 증가하였다.

97년 레미콘산업은 민간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한 대규모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 및 중 · 소레미콘업체의 도산이 이어져 전년에 비해 레미콘 출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관수용 레미콘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민수용 레미콘의 증가폭을 상회하여 전체 레미콘 산업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1998년도 건설경기 전망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998년 상반기 동안 국내 건설공사의 수주실적(경상가격 기준)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3.7%가 감소한 34조 7,5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1997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는 것은 IMF프로그램의 이행에 따라 우리 경제가 1% 내외의 경제 성장률, 정부 지출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극도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문별 수주실적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가 1997년 상반기에 대비하여 각각 11.5%와 15.1%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13조 9,400억원과 20조 8,2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공종별 수주실적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1997년 상반기에 대비하여 각각 16.5%와 12.4%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12조 4,700억원과 22조 2,8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 하였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실질 GDP 성장율이 지난해 5.9%보다 낮은 1.3%에 머물것으로 보이나 99년에는 3.4%로 호전되겠으며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해 1%증가에서 98년에는 21.4%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97년 6%감소한 기업설비투자의 경우 올해에는 -24.4%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7〕 건설계약액 추이 및 전망

구 분	1996년 상반기		1997년 상반기		1998년 상반기(전망)	
	수주실적 및 구성비(경상가격 기준 조원, %)					
	수주액	구성비	수주액	구성비	수주액	구성비
총수주액	40.24	100.0	40.27	100.0	34.75	100.0
토 목	14.20	35.3	15.75	39.1	13.94	40.1
건 축	26.05	64.7	24.52	60.9	20.82	59.9
공 공	15.22	37.8	14.94	37.1	12.47	35.9
민 간	25.02	62.2	25.43	63.1	22.28	64.1
	증감액 및 증감률(전년대비 경상가격 기준 조원, %)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총수주액	7.75	23.9	0.03	-0.1	-5.52	-13.7
토 목	4.52	46.7	1.55	10.9	-1.81	-11.5
건 축	3.24	14.2	-1.53	-5.9	-3.70	-15.1
공 공	4.68	44.4	-0.28	-1.8	-2.47	-16.5
민 간	3.07	14.0	0.41	1.6	-3.15	-12.4

주 : 건설계약액은 건설협회 회원들의 수주 총계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건설산업연구원